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9. 8 통권 제56호

現代經濟研究院

統一經濟

8
1999
제56호

편집자의 글

안정된 남북 관계 기반 조성을.....3

포커스

남북 경색 국면 어떻게 풀 것인가 • 문정인4

특 집

남북 경협 의 법적 · 제도적 장치 점검

남북 경협 의 법적 · 제도적 보장 장치의 필요성과 방향 • 장명봉10

남북투자보장협정 • 제성호18

이중과세방지협정 • 문준조25

신변안전보장협정 • 백학순32

경협정보

서해안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남북 경협 • 정원준39

논 단

대만 · 중국간 경제 교류와 남북 경협 • 고정식52

탈북 이주민 사회 적응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 이상만69

북한의 대외 협상 자세와 시사점: 페리 권고안과

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 윤덕민84

북한경제

북한의 미사일 산업 · 기술 평가와 향후 발전 전망 • 임을출96

해외시각

베트남 경제 개혁의 경험 : 북한 경제 부흥에의 시사점 • 田辺輝行 ·105

독자기고

북방한계선의 국제법적 분석과 재해석 • 이장희116

통 권 제56호
등록번호 라-6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9년 8월 10일
발 행 인 김중웅
편 집 인 정순철
편집위원 김정균 유병규
김선덕 김희성
박태일 황동연
편집주간 홍순직
제작주간 심재철
편집교열 장은숙
발 행 처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중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24-4114
F A X (02)730-1770
인 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2636-0555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제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안정된 남북 관계 기반 조성을

특집

근 남북 관계가 난기류를 타고 있다. 서해 교전과 금강산 관광객 억류 사건으로 인해 남북간에 긴장 관계가 조성되었다. 그동안 남북 관계는 정치·군사적 사건에 따라 크게 변모해왔다. 이제는 남북 관계가 불연속적인 데서 벗어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포커스에서는 최근의 한반도 현안과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남북 경색 국면 어떻게 풀 것인가”를 다루었다. 특히, 대북 포용 정책의 지속 여부와 북한 미사일 재발사 우려에 대한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특집에서는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에 따라 현안으로 제기된 남북 경협 추진 상의 법적·제도적 장치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총괄적인 측면에서 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을 조명해본 뒤, 구 동서독과 중국·대만간의 교류 협력 법제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제도적 장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신변안전보장협정’ 등을 다루었다. 각각의 협정 체결에 있어서의 기본 전략과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과제,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간략히 제시하면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경협정보에서는 “서해안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남북 경협”이란 주제로 서해안 사태를 전후로 한 남북 경협의 특징과 업계의 동향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논단에서는 남북 경협 활성화의 필요 충분 조건과 한계, 그리고 극복 방안을 다루었다. 고정식 교수는 “대만·중국간 경제 교류와 남북 경협”이란 제목으로 분단 국가인 중국과 대만간의 정경 분리식 경협 사례 분석을 통해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윤덕민 교수는 페리 대북 정책 조정관의 권고안과 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외 협상 자세를 분석하였다.

한편, 해외시각에서는 “베트남 경제 개혁의 경험”이란 제목으로 체제 전환국인 베트남의 경제 개혁과 부흥 과정을 통해 북한 경제 회복 및 부흥 전략에 시사하는 바를 다루었다. 이외에도 최근 발생된 서해 교전 사건을 계기로 북방한계선에 대해 독자기고를 실었다. 이장희 교수는 “북방한계선의 국제법적 분석과 재해석”이란 주제로 학자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실험에 대해 북미제네바핵합의와는 분리된 접근 방식을 권하고 있다. 또한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 하에 強溫 兩面의 전술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이 포괄안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제시함과 동시에, 우선은 포용 정책이란 당근부터 제시하여 북한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도록 유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된 신변안전보장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남북 경협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남북 관계가 보다 안정된 기반을 다져나가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1999년 8월
편집자